

지역 소식통

완주군, 귀농자금 접수 시작

완주군이 하반기 귀농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완주군은 오는 29일부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일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인을 주 대상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업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 마련은 최대 7500만원을 한도로 용자가 가능하며,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영농종사 6개월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로 완주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5년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지역민들도 귀농자금 접수가 가능해 농업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취약계층 폭염 예방에 앞장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보건진료소를 통해 지역 주민과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불발더위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관리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감염병과 각종 질병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김제시 보건진료소(25개소)가 지난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일한 생수를 제공하여 충분한 수분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예방 9대 건강수칙을 교육하고 있다.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폭염주의보나 경보발생 시 안부 전화와 가정방문 등 수시로 건강 모니터링과 폭염예방 대응요령을 적극 교육하고, 피해환자의 조기발견과 응급의료 기관 연계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 건강한 여름나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3현(現) 행정' 펼친다

현장·현물·현실... 직접 현장 방문·현물을 눈으로 보고·현실에서 대안 찾기 강조

완주군이 13개 읍면의 현장행정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현물, 현실'을 중시하는 '3현(現) 행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동안 비대면 업무추진이 강조돼 읍면별 출장을 자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 주민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등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읍면 행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최근 읍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시설물 점검과 도로변 쓰레기 처리, 지역 내 사업장 애로 여론 청취 등 현장위주 행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은 행정 서비스의 최전방인

읍·면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현물을 눈으로 보고, 점검해야 현실을 만날 수 있고, 그 현실 속에 민원인의 진심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장·현물·현실'을 강조하는 '3현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읍면의 민원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읍면에서 진행되는 실과 소 현황공유 시스템을 구축, 읍면 직원들도 지역 내 진행사업에 대해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행정의 실질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만나는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사업현황 공유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읍면의 현장 대응을 중시하는 완주군의 방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빛을 발하기도 했다.

행정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13개 읍면을 통해 지역사회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함은 물론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포함한 방역지침을 즉시 전파하는 등 '코로나 청정지역'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현장과 현물, 현실을 확인하고 대주민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 문을 열었다.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발돋움

김제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23일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 문을 열었다.

이날 강의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자문단 위원인 곽현근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권역별 교육 총 3회를 진행한다.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개념과 주민참여예산 제안 방법 등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6. 24일부터 6. 25일까지 운영되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학교는 ▲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사례로 보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작성의 이해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제시는 이날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제안을 접수 받고 있으며,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의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산학교 운영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업분야 폭염대비 상황실 구축

올해 무더운 여름 예상... 재해대책상황실·현장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선제 대응 진행

완주군이 폭염에 대비해 농업분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날 초부터 폭염으로부터 농업인과 농작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오는 9월 11일까지를 폭염대책 농업분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비 재해대책상황실'을 구성했다.

상황실은 폭염특보 및 피해발생 시

경계경보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 대응체계를 진행한다.

또한 기상청 기상관측시스템과 농촌진흥청 활용 정보를 SNS에 작목별로 신속히 제공하고, 분야별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기술지원단도 운영해 농업인 밀착 지도를 통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

가 늘어나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은 지난해보다 0.5~1도 정도로 다소 높고, 폭염일수는 20~25일(2019년 13.3일), 열대야 일수는 12~17일(2019년 10.5일)로 지난해보다 늘어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만경농공단지 기업인 간담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3일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만경농공단지 입주기업인 등 1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전 (유)용진기계, (주)호룡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산업 현장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고자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 지난해 기업인 간담회 처리 결과 안내 및 입주업체들과 자유로운 대화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장 단축 근무, 매출 및 수출 감소, 우수인력 구인난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박준배 시장은 기업인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때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력을 다시금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활용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규모 200억원 확대 운영, 전복 최초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기업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공모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마을 300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여성숙)는 2020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18~19일 19개 마을 300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총동적인 음독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2019년까지 71개 마을 1,680개 보급했으며 2020년에도 김산동 용곳마을 외 18개 마을 300개가 보급되어 현재까지 90개 마을 1,98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되었다.

이번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에 그치지 않고 해당 마을 이·통장을 비롯한 생명지킴이 위촉과 농약안전보관함 적정 사용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보급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농약사용과 농약관리문화가 잘 정착하여 총동적으로 이뤄지는 농약 음독자살을 상당 부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생명지킴이 양성·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앞으로도 김제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